

	<h1>보도자료</h1>	2022.1.04. (화)
더불어민주당 대한민국 대전환 제20대 대통령선거 선거대책위원회 평화번영위원회 산하 미래한반도청년특별위원회 출범식		
보도 : 즉시	담당 : 조경일(010-6747-1354)	

후보직속 평화번영위산하 미래한반도청년특위 출범 기자회견 열어
“남북청년들이 함께 소통하고 실천하는
작은 평화공존의 장 마련”

- 5일 오후 2시, 더불어민주당 당사에서 이재명후보 직속 평화번영위원회 산하에 남북한청년들로 구성된 <미래한반도청년특별위원회> 출범 기자회견 예정
- 조경일, 소상엽, 이인애 공동위원장단 3인과 남북한청년 부위원장단으로 구성
- 평화통일에 대해 고민하는 MZ세대 2030남북청년들이 위원으로 동참
- 평화번영위 위원장인 이종석 전 장관이 참석하여 소개 및 격려할 예정

5일 오후 2시 더불어민주당 당사에서 선대위 이재명후보 직속 평화번영위원회 산하에 2030남북한 청년들로 구성된 미래한반도청년특별위원회가 출범한다.

특히 평화번영위원회 위원장인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이 참석하여 청년특위 활동을 격려할 예정이다. 실제로 이종석 장관은 “남북청년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 고민하며 평화통일을 만들어 가는 것이 큰 의미가 있다” 며 청년특위 출범을 적극 지원했다.

청년특위는 남북한 출신과 여성대표성을 고루 갖추었으며 ▲탈북청년 조경일(34) 통일코리아협동조합 이사와 ▲소상엽(28) (사)통일맞이 조직팀장, ▲이인애(27) 통일비 내리는 날 교육지원 팀장이 공동위원장을 맡았다.

또한 남북 간에 평화적 교류확대를 통한 점진적 변화에 대해 관심 갖고 이재명 후

보의 실용적 통일외교정책에 공감하는 남북청년들이 부위원장단으로 구성되어 함께 특위를 이끌어 나갈 예정이다.

출범식에는 ▲대학원생인 유민아 BE 소셜벤처 대표, ▲이성엽 동국대 북한학과 전공자, ▲탈북청년사업가인 조동현 바라키엘 패션 대표, ▲곽현웅 쟈타일 스튜디오 대표 등 다양한 고민을 갖고 있는 2030남북청년들이 참석하여 자신들의 목소리를 낼 예정이다.

청년특위를 총괄하고 있는 조정일 위원장은 활동 방향에 대해 “지금까지 정치권에서 소외되었던 탈북청년들의 실질적인 목소리를 담고, MZ세대 남북청년들이 함께 미래 한반도의 방향성을 고민함으로써 평화와 통일에 관한 새로운 관점을 모색한다는 취지” 라고 설명했다.

특히 “통일은 첫 단추가 아니라 마지막 단추” 라며 “이미 한국에 정착하여 평범하게 살아가고 있는 탈북청년들과 함께 목소리를 내는 것이 중요” 하다고 강조했다. 참여하는 청년들도 서로 공감하고 먼저 알아가고, 만나서 소통할 수 있는 작은 부분부터 시작해야 한다며 입을 모았다.

출범식에 함께하는 청년들은 기존의 진부한 통일담론 대신 북한과 자유로운 만남을 추구한다는 ‘자만추’, ‘썸타다’ 등의 신조어로 청년감성을 어필했다. 특히 “불가능해 보이는 통일보다는 여행을” 강조하며 “북한의 대동강 맥주와 한국의 K-치킨으로 통일치맥을 원한다” 는 피켓을 들고 청년들의 피부에 와 닿는 이야기를 할 예정이다.

청년특위는 후보의 실용적 대북정책을 지지하고 현실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목소리를 내어 MZ청년세대의 공감대를 형성할 다양한 활동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끝

더불어민주당 대전환 선대위

후보직속 평화번영위원회 산하 미래한반도청년특별위원회